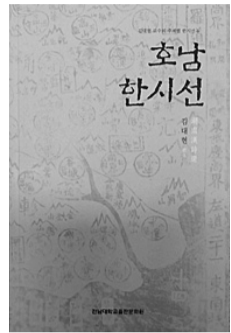


# 호남 작가 110명의 '한시'를 만나다

김대현 교수 '호남 한시선' 발간  
임제 '무어별', 황현 '절명시' 등  
"수십만 수 한시 정리 오랜 꿈  
선인들의 문화유산 계승 필요"



호남은 문향(文鄕)이라고 불릴 만큼 문학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한문 문집은 약 3000여 종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작품은 남아 있지만 문집을 남기지 못한 작가들까지 포함하면 족히 수 천 명은 이를 것이다. 가히 호남은 '한국문학의 고향'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김대현(사진) 전남대 국어국문과 교수는 평소 한국 한시를 주제로 조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김대현 교수의 주제별 한시선'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주제들을 엮어 한시를 번역해오는 작업을 했다. '무등산 한시선', '사군자 한시선', '북한산 한시선' 등이 그런 예다.

최근 김 교수가 110여 명에 이르는 호남 한시 작가들의 한시를 선별해 '호남 한시선'을 펴냈다.

정년(8월)을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처럼 '호남 한시선'으로 묶어낸 것은 최초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책에는 호남 지방의 주요 한문학 작가들은 거의 포함돼 있다"며 "수 천 명에 이르는 한시 작가 가운데 아주 일부 작가들 선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문학의 전통을 알기에는 매우 부

족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시도를 했다"며 "호남에서 출생했거나, 혹은 호남에서 운명을 했거나, 또는 호남과 관련을 맺으며 창작활동을 했던 이들은 모두 호남의 문학 전통을 만들어간 작가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한시선은 1인 1수씩 선별해 번역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가을밤에 비는 내리고' (최치원)를 비롯해 '불우현음' (정극인), '효직의 상을 당하여' (박상), '면양정 노래' (송순), '소정의 난간에 기대어' (김인후), '규봉에 올라' (기대승), '말없이 이별하며' (임제) 등이 실려 있다.

또한 '남산의 시' (유몽인), '가을밤 우연히 읊으며' (윤선도), '음주' (정약옹), '문수사에서 여름을 보내며' (기정진), '절명시' (황현), '새해 첫날' (양한묵), '무등산' (허백련), '매화를 전별하며'

(신호열)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 교수는 "수천 종이 넘는 호남의 한문 문집을 정리하고 그 안에 실린 수십만 수에 이르는 한시 작품을 정리하는 일은 오랜 꿈이었다"며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잘 이어가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시 연구가 작가별, 시대별 특정 부문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욕구에 응대해 주제별로 한문학, 국문학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시를 묶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작품이냐는 물음에 김 교수는 '무어별' (無語別)을 꼽았다. '말도 못한 이별'이라는 뜻을 담은 작품은 이별한 여성의 마음을 읊은 서정시다.

"열다섯 살 아리따운 아가씨/ 부끄러워 말도 못한 체 헤어지고/ 돌아와 중문을 닫고는/ 배꽃에 걸린 하얀 달 보며 눈을 흘리네"

호랑하고 기백이 넘치는 임제의 여느 시와는 달리 서정성이 강한 작품이다. 어린 소녀의 애뜻한 마음이 절제된 언어로 잘 드러나 있다.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심미적으로 묘사한 시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김 교수는 부정 원림을 모티브로 한 한시 김인후의 시도 좋은 작품이 많다고 했다. 1200-1300여 수 가운데 약 40포로 가까이 부정, 원림 등 자연을 노래한 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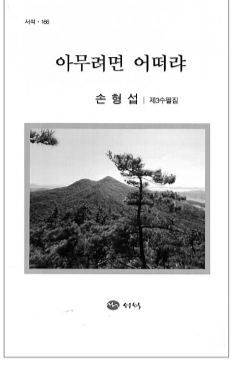
오는 8월이면 정년퇴임을 하는 김 교수는 앞으로도 주제별로 한문학, 국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책에는 아주 일부 작가들을 선별하였다"며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 호남문학의 역사, 특히 고전 한문학의 역사가 잘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늦깎이 시인의 삶의 흔적

화순 출신 손형섭 시인 수필집 '아무려면 어떠랴' 펴내



늦깎이 시인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왔던 손형섭(사진) 시인이 수필집 '아무려면 어떠랴' (서석)를 펴냈다.

세 번째 수필집인 이번 책은 그동안 문예지를 비롯해 일간지 등 다양한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 가운데 40편을 모아 묶었다.

화순 출신인 손 시인은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대에서 대학원장, 사회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년퇴임 후 서은문학연구소에서 시 습작을 하며 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늦게 시작한 만큼 이후 시인은 네 권의 시집을 펴내며 창작의 열정을 풀어내고 있다.

이번 수필집 발간에 대해 손 시인은 "지금까지는 시를 써왔지만 수필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틈나는 대로 작품을 써왔다"며 "시기상으로 오래 전 글들도 있지만 독자들이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필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고향길을 거닐며', 2부 '경제만 있고 도덕은 없고', 3부 '대학의 변화와 개혁', 4부 '산상수훈과 경제윤리' 등이다.

손 시인은 지난 2017년 '문학예술' 불호에 시 부문으로, 가을호에 수필 부문으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시집 '별빛', '파도', '만추', '겨울 나그네' 등과 수필집 '삶의 흔적', '추억' 등을 발간했다. 2023년에는 '월간문학' 가을호에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울 인디밴드, 봄처럼 따뜻한 음악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9일 '너드커넥션 봄의 사운드'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시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오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강던 밤을 기억하거든요"(너드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중에서)

달콤한 가사 속에 애수 어린 감정을 담아내는 너드커넥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연세대 밴드 동아리 '메두사'에서 인디밴드 음악이라는 너드(Nerd)한 취향을 공통분모 삼아, 현재 브리티쉬 팝과 얼터너티브 록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사랑까지 받고 있는 이들이 광주에 온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 '너드커넥션 봄의 사운드'가 4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을 표어로 내걸고 활동하는 너드커넥션은

2018년 '에머젠스 세계밴드대회'에서 우승했으며 같은 해 독일 '타우베르탈 페스티벌'에서 한국 대표로 데뷔하며 이름을 알렸다. 보컬과 기타에 서영주, 기타 최승원, 베이스 박재현, 드럼 신연태.

2020년 발표한 대표곡 '좋은 밤 좋은 꿈'을 비롯해 '여전히 이곳에' 등이 유행 퍼졌다.

모성일 홍보팀장은 "너드커넥션은 지난해 관객 참여형 공연 등으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아 왔다"며 "뚜렷한 멜로디, 깊이 있는 가사로 확실한 음악적 세계관을 구축해 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또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오월항쟁 걸개시화 10일까지 원고 모집



5.18 국립묘지 일원에 내걸렸던 걸개시화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집회나 시위 현장 등에 거는 큰 그림을 '걸개그림'이라 한다. 80년대 민중미술의 한 형태로 걸개그림이 성행했으며 민주화운동 등과 맞물려 확산됐다. 대표적 작품은 6월 항쟁 과정에서 내걸린 '한열이를 살려내라'. 지난 1987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이후 이어진 시위현장에서 걸려 많은 이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걸개그림과 함께 주목받는 걸개시화는 작품 속에 시가 삽입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 5·18 역사적 의미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걸개시화가 많이 활용되기도 했다. 광주 5월을 기리는 방법으로 걸개시화가 시위나 집회 현장, 또는 추모현장에서 걸렸던 것은 그런 연유다.

올해 오월항쟁 44주기를 맞아 오월문학제 걸개

시화 전시가 올해도 진행된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는 5월 한달간 5·18 국립묘지 일원에 전시할 걸개시화 원고를 모집한다. 5·18광주민중항쟁, 인권, 민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걸개시화 1편(행간 포함 25행 이내), 산문은 200자 내외여야 하며 원고마감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작

가회의 문의.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은 "오월문학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걸개시화전은 오월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주와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남도국악원 신임 예술감독에 노부영 씨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 '제7대 국악연주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노부영(59·사진) 씨가 임명됐다.

노 감독은 공개모집 경력경쟁재용을 통해 선발됐으며 최초 임기는 2년, 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대금을 전공한 노부영 예술감독은 1987-2004년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2008-2009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2011-20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감독(2020-2022) 등을 맡아 왔다.



이 밖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 KBS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국립국악원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국악원 관계자는 "풍부한 예술 경력을 갖춘 노부영 신임 예술감독이 국악단의 공연 수준 향상, 남도 국악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